

윤활유, 긴 침체 딛고 “기지개”

경기침체로 성장둔화 ... 중국 고속성장에 서유럽 친환경 확산

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윤활유(Lubricant) 시장에 치명타를 가했으나 최근 들어 경기회복 전망과 연료경제성 향상 및 친환경 제품개발 등으로 윤활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.

White Eagle Group에 따르면, 윤활유 시장 성장속도는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승용차 엔진유(Motor Oil)를 포함한 몇몇 분야는 연평균 1-2%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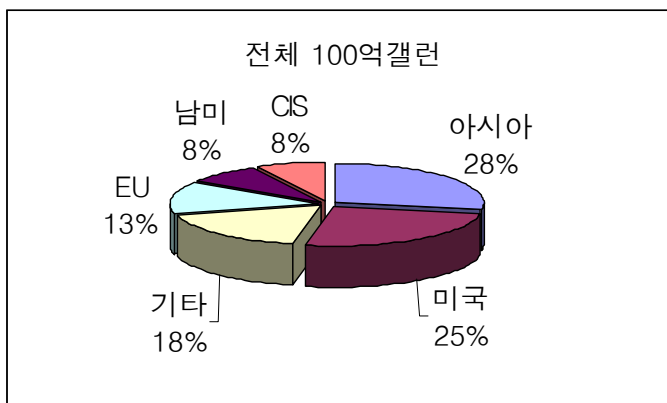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윤활유 성능향상이 윤활유 교체기간(Drain Interval)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성장을 둔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또 윤활유 합성기업(Blender)들은 Wal-Mart와 같은 대형 유통기업과 불안정한 기유(Base Oil) 시장 속에서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게 됐으며 원료코스트가 상승하더라도 수요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완충제 역할로 전락했다. 또한 원료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도 장기 성장을 목표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.

Petroleum Trends International(PTI)에 따르면, 세계 윤활유 완제품 수요량은 2002년 약 110억갤런에 달했으며 2002-10년 연평균 1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미국과 같은 성숙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반면, 동유럽 및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-태평양 지역은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. 동아시아, 특히 중국 윤활유 시장은 2010년 안에 서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초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.

일반 윤활유를 대신해 합성윤활유 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5-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합성윤활유 생산기업들은 다른 윤활유 생산기업에 비해 양호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세계 윤활유 시장점유율



Freedonia Group은 미국의 합성윤활유 및 기능성 유체(Fluid) 수요가 2006년까지 연평균 5% 증가해 총 2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, 전체 수요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시장이 앞으로도 윤활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그러나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디젤연료 및 승용차 엔진유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고액의 테스트 비용이 요구되는 윤활유 첨가물 및 포물

레이션 기술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. 제품사양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, 테스트 및 승인비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5/07>